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다중매개효과

홍윤경* · 최혜진**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각 동시에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7개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020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 정도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의 하나인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양육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을 위한 부모의 양육 및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부모의 자율성지지,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논문 투고일: 2024. 1. 28.

최종심사일: 2024. 2. 26.

게재확정일: 24. 3. 21.

* 강동대학교 글로벌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Corresponding Author: Choi, Hye jin, 111, Madeul-ro, Nowon-gu, Seoul, Republic of Korea. 01909.

E-Mail: hyejin825@gmail.com

I. 서론

청소년기는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효능감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적성을 알아가는 시기이다. 또한 다양한 진로활동을 경험하며 자기를 인식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미래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해 가는 등 진로의 성숙 과정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니며 풍부한 학습과 활동 등 다소 의도적인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김재철·황매향·김아영, 2011). 생애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준비와 선택은 한 번만 경험하게 되는 일이 아닌 여러 번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인생의 과업이며, 현명한 진로 선택을 통해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진로에 대한 계획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변화를 겪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기에 이 시기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김충기, 1995).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진로 성숙을 성취하기 위한 많은 탐색과 경험이 요구되며,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더욱 크다. 가족구조의 변화,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녀가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였고, 청소년 진로에 대해서도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김용기, 2022; 정철영·이영광, 2020). 기존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 등에 있어 부모의 지지, 양육태도와 양육행동 등과 같은 부모의 영향은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박은주, 2023; 정철영·이영광, 2020; 허정철, 2005).

부모의 진로 지지와 관련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부모의 지속적이고 다방면적인 지원 가운데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관점을 이해해주고 스스로에게 정보와 선택권을 제시해주며 자녀 스스로 착수한 일에 반응하고 지지해주는 양육방식이다(오상철, 2015; Deci et al., 2006).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지지해주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선택권 부여, 이유 설명, 감정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Joussemet et al, 2008; Mageau et al, 2015). 이러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기본 심리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효립, 2016; 풍완, 2019; Standge & Gillison, 2007).

한편, 청소년의 진로성숙에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더불어 청소년 본인의 기본심리욕구

의 충족이 요구된다. Ryan과 Deci(2000)은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통해 인간의 기본심리욕구 즉,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는 개인 내적으로, 그리고 인간 발달의 문화적 맥락에서 성격형성과 인지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 진로성숙 관련 발달에 있어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충족되면 자기결정성 동기가 형성되고, 더불어 긍정적인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청소년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타인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지속 되거나 학업에서 유능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결정성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진로발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김하영·강한솔·한윤선, 2018). 이렇듯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자기결정성 동기를 높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설명하는 부모 요인으로서 부모의 진로 지지를 설명함에 있어 기술습득에 대한 지지, 진로 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 등의 개념을 주로 사용해오고 있어(정철영·이영광, 2020),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같은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 선택 혹은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다수이나 일부 하위 변인들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김수리·이재창, 2007).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설명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 경로들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보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인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가정에서의 양육방안 제시를 위해,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다중병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간 부모로부터의 자율성 지지와 청소년의 진로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온 연구들은 일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의 자율성지지 수준이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차원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변인 각각의 충족 정도를 매개로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 이들의 내적동기를 높이는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동시에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Ryan과 Deci(2000)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 가운데 자율성을 가장 핵심적 욕구로 강조하였다. 자녀에 대한 자율성 지지는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이 되려는 자녀를 부모가 능동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 원리와 규범에 대해 선택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이 따르게 된다. 자녀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무책임이나 위험한 행동을 방임하는 태도가 아닌 자녀에게 허용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스스로 선택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양육태도를 의미한다(채은영, 2016).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개방적인 양육 태도는 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박지현 외, 2010).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지지 및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말하는데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선택하는 능력에 도움을 주게 된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규율과 행동적 요구에 대해 설명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Joussemet et al, 2008). 이러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즉,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감정을 인식하는 양육방법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되고 학업에 대한

효능감과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이기남, 2018; 이해지, 2013).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주요 발달과업으로서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는 것과 함께 자율성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는 앞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박성연·이은경·송주현, 2008).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녀의 진로발달은 서로 영향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uay(2003)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부모 통제 및 진로결정 자율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부모 통제가 자녀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 자율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성과 부모 자율성 지지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학교 환경 속에서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은교·안도희 2018).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진로발달을 돕고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부모가 지나치게 주도적인 양육을 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리·이재창, 2007).

진로성숙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기학과 한종철(1997)의 연구에서 ‘진로는 객관적·외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직업과 관련된 활동과 더불어 개인의 태도 가치관과 같은 개인의 내적·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며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5개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 진로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란 청소년이 자신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결정, 이행하는 과정의 발달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김향숙, 2005; 조성심, 2010). 이러한 진로성숙도의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란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중학생의 진로성숙을 측정하는데 진로를 준비하는 태도와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준비의 정도를 초점으로 보고자 하여 이기학·한종철의 진로태도 측정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Keller와 Whiston(2008)는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부모가 진로에 대해 자녀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심리적 지지를 할수록 자녀는 진로에 대해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진로 영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Guay(2003)는 부모 자율성 및 부모 통제와 자녀의 진로결정 자율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의 통제는 자녀의 진로결정 자율성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진로결정 자율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성과 부모 자율성 지지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학교 환경 속에서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은교·안도희, 2018).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진로발달을 돕고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부모가 지나치게 주도적인 양육을 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리·이재창, 2007). 이와 같이 부모의 적절한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의 효과

Deci와 Ryan(2000)의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이 타고나는 것으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욕구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개인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건강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즉,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행동의 근원 또는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때 유능하다고 느끼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자기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게 된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성은 가장 핵심적인 욕구로 자신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며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고 조절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김아영·차정은, 2010; 김윤지·김정섭, 2014; 안도희, 2013; 이상우, 2010; 최인선·주은지, 2013). 자율성은 행위의 원인이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인식하여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행동에 생각을 반영하게 된다(Ryan & Deci, 2000). 이러한 자율성이 타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정 당하게 되면 스스로 행동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저해되어 건강한 성장이 침해받게 된다. 유능성의 욕구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이 목표한 것을 달성했을 때 충족되게 된다(김아영, 2010; Deci & Ryan, 2000). 유능성의 충족은 행동에 대한 동기의 내재화 및 자기조절을 촉진하는데 유능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내재화할 수 없게 된다(Deci & Ryan, 2002). 관계성은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관심을 주고받으며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김우리·심호진·김정섭, 2017; Ryan & Deci, 2000). 청소년기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될 경우 학교적응이나 학업능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박병선·배성우, 2012).

청소년기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인지발달과 성격형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은 내적동기를 강화시키게 되어 학습과 성장,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통한 내적동기의 강화는 자기결정성을 높이게 되지만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내적동기가 약화되어 삶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행복감이 떨어지게 된다(Ryan & Deci, 2000).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심리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다루어지는 변인 중 하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감정을 인식해 주며 이유를 설명해주는 자율성 지지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소효립, 2016; 풍완, 2019).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관계성을 높이게 되고 자기결정 행동을 통하여 유능감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연구들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 정도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정, 2012; 소효립,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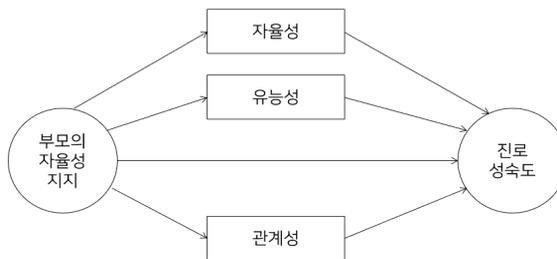
석희정(2015)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생애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우리 외(2014)의 연구에서도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즉,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서 내적동기가 발생하며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고 무엇인가 행동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성을 높이게 되어 진로성숙도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김하영 외, 2018). 이상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7개 중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협조가 가능한 학교의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통해 배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중학교 2·3학년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조화시켰으며, 설문지의 응답은 연구대상자가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1,200부 중 1,039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일반적 사항이 미작성된 19부를 제외한 총 1,020명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부모의 자율성지지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은 Mageau 외(2015)가 개발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척도(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Scale: P-PASS)의 하위차원 중 하나인 부모의 '자율성 지지 행동'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척도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 행동'은 '선택권 부여(Providing Choice)' 요인(4문항), '이유 설명(Explaining Reasons)' 요인(4문항), '감정 인식(Recognizing Feelings)' 요인(4문항)으로 3가지 하위요인(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7점 만점의 리커트(Likert)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선택권 부여의 Cronbach's α 는 .769, 이유설명 of Cronbach's α 는 .774, 감정인식의 Cronbach's α 는 .844, 부모의 자율성 지지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는 .908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측정을 위해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하고 이기학(1997)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진로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에 대한 태도를 결정성(10문항), 목적성(8문항), 확신성(10문항), 준비성(10문항), 독립성(9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총 47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및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문항 검토 결과를 토대로 22문항(결정성

4문항, 목적성 5문항, 확신성 4문항, 준비성 5문항, 독립성 4문항)을 최종적으로 측정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Likert)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결정성의 Cronbach’s α 는 .882, 목적성의 Cronbach’s α 는 .752, 확신성의 Cronbach’s α 는 .711, 준비성의 Cronbach’s α 는 .694, 독립성의 Cronbach’s α 는 .768이며,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는 .835로 나타났다.

3) 기본심리욕구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이명희와 김아영(2008)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별 6문항씩 총 18문항이다. 각 하위요인의 대표 문항을 살펴보면, 자율성은 ‘나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유능성은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한다고 말한다’, 관계성은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6점 리커트(Liker)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6점)이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율성의 Cronbach’s α 는 .797, 유능성의 Cronbach’s α 는 .850, 관계성의 Cronbach’s α 는 .848로 나타났다.

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23 버전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23 버전을 활용하여 변인 간 구조모형 검증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측정모형을 분석하여 적합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이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인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CMI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시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 매우 적합한 모형이나 χ^2 는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져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김주환 외, 2006). 따라서 χ^2 값 외에 CFI, TLI, RMSEA 지수를 종합적으로 모형 적합도 판정의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Bentler, 1990),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 이하이면 매우 좋은 수준, .08 이하이면 괜찮은 수준, .08~.10 이면 보통 수준, .10보다 큰 경우에는 적합도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3가지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다중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상호 위계적 관계가 아닌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매개효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해 팬텀변수를 추가 생성하여 분석하였다(배병렬, 2014). AMOS에서는 다중매개효과 분석 시 전체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값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 매개변수별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배병렬, 2014). 이에 연구모형에서 팬텀변수를 추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1,020명으로 남학생이 420명(41.2%), 여학생이 600명(58.8%)이었다. 학년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은 337명(33%), 3학년은 683명(67%)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020)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성별	남학생	420	41.2
	여학생	600	58.8
학년	중학교 2학년	337	33.0
	중학교 3학년	683	67.0
학업성적	상위 20% 이내 (상)	232	22.7
	21~40% 사이 (중상)	240	23.5
	41~60% 사이 (중)	290	28.4
	61~80% 사이 (중하)	175	17.2
	81% 이상 (하)	83	8.1
경제적 수준	상	63	6.2
	중상	260	25.5
	중	553	54.2
	중하	122	12.0
	하	22	2.2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인 부모의 자율성 지지, 진로성숙도,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분석은 각 변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측정변수의 정규분포는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클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준에 따라 고려했을 때 변수들은 대체로 정상분포를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Kline, 2015). 또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관계수 절대값이 .80 이상인 것은 없어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구분	1	2	3	4	5
1. 부모의 자율성 지지	1				
2. 진로성숙도	.268**	1			
3. 자율성	.507**	.354**	1		
4. 유능성	.431**	.415**	.484**	1	
5. 관계성	.485**	.328**	.493**	.501**	1
평균	5.33	3.45	4.35	4.21	4.80
표준편차	1.02	.52	.94	.98	.85
최소값	1.67	1.80	1.33	1.00	1.67
최대값	7.00	4.76	6.00	6.00	6.00
왜도	-.56	.20	-.33	-.38	-.65
첨도	-.15	-.36	-.28	.15	.26

* $p < .05$, ** $p < .01$, *** $p < .001$

3. 연구문제 검증

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167.046(19)(p<.001)$, CFI=.943, TLI=.916, RMSEA=.087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유의 수준 $p<.001$ 의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이 .40이상일 때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는데(김계수, 2010), 이 측정모형에서는 진로성숙도의 목적성 변수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536~.899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성숙도의 목적성 변수의 요인부하량의 경우 .143로 값이 낮았으나, 이는 설문조사 당시 목적성 변수 전체가 부정문항으로서, 긍정문항과 동시에 포함되었을 때 방법 효과의 발생으로 통계 오류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Brown, 2015), 기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목적성은 중요한 하위요인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의 5가지 하위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이기학·한중철, 1997; 오정아·남부현, 2014).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과 모형의 적합도

구분		B	β	S.E.	C.R.
부모의 자율성 지지	선택권 부여	1	.835		
	이유설명	1.083	.787	.039	28.070***
	감정인식	1.353	.899	.043	31.102***
진로성숙도	결정성	1	.536		
	목적성	.198	.143	.051	3.868***
	확신성	.768	.595	.061	12.501***
	준비성	.710	.605	.056	12.615***
	독립성	.864	.734	.064	13.441***
구분		χ^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167.046(19)***	.943	.916	.087

* $p < .05$, ** $p < .01$, *** $p < .001$

2) 구조모형의 검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데 적정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df)=616.776(40)($p < .001$), CFI=.862, TLI=.810, RMSEA=.119으로,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검토하여 모형 수정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기본심리육구 3개의 하위요인 간 오차항, 즉, 자율성과 유능성의 오차항(M.I.=79.526) 자율성과 관계성의 오차항(M.I.=67.581), 유능성과 관계성의 오차항(M.I.=101.587)에 공분산을 설정하였을 때,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측정변수 중 목적성과 확신성의 오차항(M.I.=51.969)에 공분산을 설정하였을 때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카이제곱 변화량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616.776(40)***	.862	.810	.119
수정모형	307.994(36)***	.935	.900	.086

* $p < .05$, ** $p < .01$, *** $p < .001$

(2)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각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도출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첫째,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 즉,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자율성($\beta = .545, p < .001$), 유능성($\beta = .456, p < .001$), 관계성($\beta = .515, p < .001$)의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세 개의 하위요인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의 경로, 즉, 자율성($\beta = .138, p < .001$), 유능성($\beta = .382, p < .001$), 관계성($\beta = .172, p < .001$)은 모두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B	β	S.E.	C.R.
부모의 자율성 지지→자율성	.620	.545	.035	17.786***
부모의 자율성 지지→유능성	.540	.456	.037	14.502***
부모의 자율성 지지→관계성	.527	.515	.032	16.657***
부모의 자율성 지지→진로성숙도	.055	.075	.032	1.739
자율성→진로성숙도	.089	.138	.026	3.433***
유능성→진로성숙도	.238	.382	.026	9.010***
관계성→진로성숙도	.124	.172	.029	4.304***

* $p < .05$, ** $p < .01$, *** $p < .001$

3)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충족 정도의 전체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모형의 전체 매개효과가 .304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간접 신뢰구간은 .243~.372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 구조모형의 전체 매개효과

경로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의 자율성 지지→진로성숙도	.304	-	-	.243	.372***
	-	.055	-	-.018	.127
	-	-	.249	.195	.311***

* $p < .05$, ** $p < .01$, *** $p < .001$, 비표준화 자료기준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과 진로성숙도의 전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개별적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개별 경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자율성→진로성숙도에 이르는 경로를 팬텀변수 p1과 p2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유능성→진로성숙도의 경로를 p3과 p4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관계성→진로성숙도의 경로를 p5과 p6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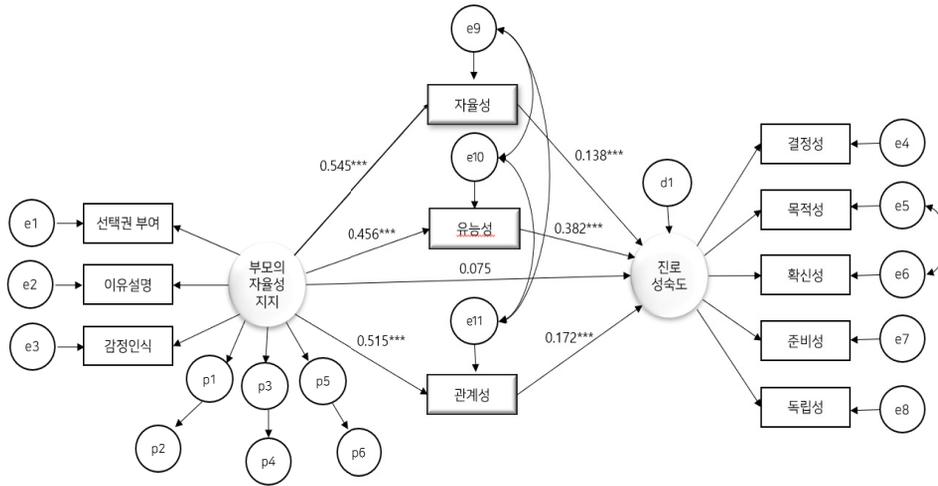
자율성의 매개효과는 .055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이 .023~.091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성, 관계성 역시 매개효과 추정치는 각각 .128, .065였고, 95% 신뢰구간에서 각각 .097~.166, .037~.096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각을 매개로 진로 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팬텀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의 개별 매개효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의 자율성 지지→자율성→진로성숙도	.055	.020	.023	.091**
부모의 자율성 지지→유능성→진로성숙도	.128	.021	.097	.166***
부모의 자율성 지지→관계성→진로성숙도	.065	.018	.037	.096***

모형적합도: $\chi^2=307.994(df=36)$ $p < .000$, RMSEA=.086, TLI=.900, CFI=.935

* $p < .05$, ** $p < .01$, *** $p < .001$, 비표준화 자료기준



[그림 2] 팬텀변수를 추가한 구조모형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각 동시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 시기 진로교육에 있어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충족을 통한 진로성숙도 향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및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각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각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방향에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

성의 충족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개모형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 견주었을 때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Keller & Whiston, 2008)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동일하게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된 개념이 아니지만 진로와 관련한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일관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결과들을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관찰된다(김수리·이재창, 2007).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중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활동과 탐색이 아직 부족한 시기이기에 진로에 대한 결정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유를 설명해주며 감정을 인식해주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이 반영된 결과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위의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충족되었을 때 진로성숙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세 하위요인을 개별적으로도 모두 매개하여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는 내적 동기를 말하는 자율성을 높이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유능감을 인식하게 하며, 그리고 타인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시켰을 때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김우리 외, 2014; 윤초희, 2015). 일반적으로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안녕과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욕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인간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생기게 되어 적응과 발달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 내게 된다(한승수·이은주, 2021). 청소년기 진로성숙 발달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반대로 청소년의 자율성이 충족되지 않고 타인과 부정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학업에서도 유능감을 갖지 못할 경우, 자기결정성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진로성숙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김하

영 외, 2018). 따라서 중학교 시기는 진로에 대해 흥미, 목표, 능력을 탐색하는 단계로 중학교 시기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김우리 외, 2014). 또한, 이 시기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이 낮아질 수 있는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미래에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해 탐색해보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시기는 진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시기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계획하고 의사 결정하는 체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곽미정·김태동·김형모, 2014; 김충기, 1995; 안세지·김세일·강은주, 2012; 홍윤경, 2021).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즉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우선되어야 한다(김우리 외, 2014).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내적동기를 높이게 되며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과 함께 심리적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이명희·김아영, 2008). 이에 가정에서 자녀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자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여 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자녀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하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 즉, 선택권 부여, 이유 설명과 감정 인식의 양육 방법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러한 양육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자신감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하게 되며 학업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향상된다(이기남, 2018; 이혜지, 2013; Guay, 2003). 이렇듯 부모의 양육방식으로서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에 대해 공감하는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교를 통해 자율성 지지를 주제로 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기관 및 공공 기관 등을 통해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모의 유형에 따른 교육주제와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

체 중학생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학생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등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교사의 주도하에 학생들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추후 인터뷰 등을 포함한 질적 연구 및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에서 다방면의 교육 및 활동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검증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미정·김태동·김형모(201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적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5(3), 151-174.
-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수리·이재창(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 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아영(2010). 자기결정성 이론과 현장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아영·차정은(2010).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양육행동 지각,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3), 563-582.
- 김용기(2022). 학부모 대상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경기도 P지역 일반고교 학교운영위원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19(1), 175-194.
- 김우리·박영희·김정섭(2014).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8(2), 333-352.
- 김우리·심효진·김정섭(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학습능력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273-291.
- 김윤지·김정섭(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 47-65.
- 김재철·황매향·김아영(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주환·김은주·홍세희(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 결정성이 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 김하영·강한솔·한윤선(2018). 초기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잠재유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1(4), 21-41.
- 김향숙(2005).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연구**, 7(1), 188-214.
- 박병선·배성우(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 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 박성연·이은경·송주현(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은주(2023).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창의적 성격에 미치는 영향: 그것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20(3), 23-42.
- 박 정(2012). 청소년이 지각한 자율성지지, 기본심리욕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도시와 농촌의 비교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서상완·정지희·이사사·장성화(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력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107-126.
- 배병렬(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석희정(2015). 중학생의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자율 및 통제동기의 매개된 조절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효립(2016).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 간의 관계, 한·중 청소년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도희(2013).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1), 103-126.
- 안세지·김세일·강은주(2012). 중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활동내용 분석. **인문학논총**, 29, 345-386.
- 오상철(2015). 지각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 기본심리욕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구조적 관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아·남부현(2014).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2), 185-209.
- 윤초희(2015).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4), 129-154.
- 이기남(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 이명희·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상우(2010).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구,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학논총**, 31(1), 45-68.
- 이혜지(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도와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교·안도희(2018). 부모 자율성 지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 **교육문화연구**, 24(2), 399-418.
- 정철영·이영광(2020). 부모 진로지지 관련 변인과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3(4), 125-151.
- 조성심(2010).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생태체계 관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선·주은지(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169-206.
- 채은영(2016).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에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풍 완(2019).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기본심리욕구, 창의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중국 고등학교 영재와 일반학생 간 비교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성숙도 검사 실시 요강. 진로성숙도검사개발보고서.
- 한승수·이은주(2021).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의 잠재프로파일,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의 예측효과와 친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의 차이. **교육심리학회**, 35(1), 97-120.
- 허정철(2005).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2(1), 57-76.
- 홍윤경(2021).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에 따른 다집단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rown, T. A. (201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Guilford publications.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Deci, E. L., & Ryan, R. M.(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3-33.
- Deci, E. L., La Guardia, J. G., Moller, A. C., Scheiner, M. J., & Ryan, R. M.(2006). On the benefits of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utonomy support, Mutuality in close friend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313-327.
- Guay, F., Senécal, C., Gauthier, L., & Fernet, C.(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177.
- Joussemet, M., Landry, R., & Koestner, R.(2008).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parenting.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3), 194-20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eller, B. K., & Whiston, S. C.(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 Mageau, G. A., Ranger, F., Joussemet, M., Koestner, R., Moreau, E., & Forest, J.(2015). Validation of the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Scale (P-PAS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47(3), 251-262.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tandage, M., & Gillison, F.(2007). Students' motivational responses toward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their relationship to general self-esteem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5), 704-721.

Abstract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utonomy Support and Adolescents' Career Maturity

Hong, Yoon Kyoung* · Choi, Hye-Jin**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For this, We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1,020 students for 7 middle schools in Seoul and the Gyeonggi areas. We were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S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dividual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were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impact of parent's autonomy o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It became evident that the fulfillment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s is a significant factor in increasing their career matur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se authors suggested that desirable parenting styles in the family to enhance adolescents' career maturity,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developmental tasks. Also, we discussed that intervention to improve career maturity through satisfaction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adolescents.

Keywords: Adolescents' Career Maturity, Parents' Autonomy Support, Adolescent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social welfare, Gangdong University

** Expert Advisor, Social Security Committe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